

김정관 산업장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점검

“정부·기업 협력으로 내수 회복”

유튜버 프나르 만나 K-푸드 홍보
가전매장 찾아 실질혜택 등 강조

7개부처·3만개 기업참여 역대최대
가전·숙박·여행연계 실질혜택 ↑
국민 체감형 행사로 내수 활력 모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 서울 역 롯데마트 제타플렉스를 찾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비전으로 내걸고 관계부처와 업계가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쇼핑축제의 일환이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서울역점은 공항과 관광지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푸드, 뷰티, 패션 등의 성지로 꼽힌다. 김 장관은 외국인 특화존에서 한국 과자와 김, 라면 등 K-푸드 제품 인기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튀르키예 출신 유튜버 ‘프나르(Pinar)’의 홍보 영상 촬영에 깜짝 출연해 K-푸드의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으뜸효율 가전제품 할인행사가 진행 중인 가전매장(하이마트)을 방문한 김 장관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판촉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10년을 달려온 코리아세일페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타가 올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로 한 단계 도약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산업부(코리아세일페스타)를 비롯해 중기부(동행축제), 문체부(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행안부(지역사랑상품권), 농림부(농축수산물 할인행사), 해수부(수산물 할인판매), 관세청(코리아 듀티 페스타) 등 7개 부처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여 개 기업이 참여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할인전 ▲가전·자동차·패션·숙박 등 대형 할인행사 ▲숙박·여행·문화이벤트 ▲외국인관광

객 특별행사 등을 연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부와 가전업계는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정부 보조 10%(최대 30만원)에 제조사 추가 할인(최대 30만원 상당)을 더해 최대 6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LG전자(~11월30일), 위닉스·신일전자(~11월16일), 쿠렌(~11월9일) 등 주요 제조사가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업체별 세부 할인계획은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오는 11월9일까지 이어지며, 산업부는 유통·가전·자동차 업계와 협력해 전국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온라인쇼핑 3분기 거래액 69조 ‘역대 최대’

국가데이터처 “자동차 거래 급증 견인”
이쿠팡서비스 1년 만에 반등세 전환
모바일쇼핑 54조 돌파, 10% 증가

올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이 전년대비 136% 급증하며 전체 거래 증가를 견인했다. 이는 수입전기차 신차종 출시, 중고차거래 확대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구매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5년 9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9조2799억원으로 전년 동기(63조5460억 원) 대비 9.0%(5조7339억 원) 늘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1분기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

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9.0%) 역시 지난해 2분기(9.8%)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 상품군별로는 3분기 기준으로 상품군별로는 가방(-9.4%)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9.1%), 음·식료품(12.0%), 음식서비스(8.4%) 등에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티메프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이쿠팡서비스 거래액은 1조5121억원으로 2.2% 늘면서 약 1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수입 전기자동차 인도량 증가와 중고차 온라인 구매 확산이 맞물리며 자동차 관련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쿠팡서비스는 지난해 7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분기 티메프 사태 여파

로 거래가 위축됐던 기저 효과가 해소되면서 올해 들어 반등세가 본격화됐다”며 “특히 이쿠팡서비스 거래액이 상승 전환한 것은 티메프 사태 영향에서는 벗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4조63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0%(4조8954억 원) 증가했다. 음·식료품(18.3%), 농축수산물(20.9%)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6943억원(7.8%), 해외 직접구매액은 2조1224억원(9.2%)으로 모두 증가했다. 직판은 미국(28.1%)·일본(16.0%)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품목은 화장품(5.4%), 음식료품(50.6%), 음반·비디오·악기(14.0%)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용정보원, 경영진 성과급 기부 릴레이

총 930만원 모아 中소 지원 추진

한국고용정보원이 경영진 성과급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해 ‘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성과공유 확산에 활용한다. 공공기관 경영진이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기관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고용정보원은 3일 올해 하반기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에 기부하는 릴레이에 나서 총 930만 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는 박기영 기획전략본부장이 지난 5월 250만 원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이어 8월에는 이창수 원장이 320만 원을, 9월에는 신종각 부원장이 360만 원을 각각 출연하며 기관 내 기증 릴레이가 이어졌다. 특히 이창수 원장은 지난해 12월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기부하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의지를 강조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상생협력기금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성과공유 확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충북대학교 등 20여 개 대학교 및 지자체 창업지원센터와 협업체 창업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협력업체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금을 조성해 우수 중소기업에 재분배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특성화농업지구’ 신설로 지역농업 육성

농식품부, 시·군 특화작물 집중 관리

기존의 7개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 농업지구에서는 시·군 단위 특화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인접 산업·축산 지구와 연계해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4일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

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해 설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되는 특성화농업지구에서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 및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 암모니아 선박 국제표준 판 짠다”

국표원, 국제표준 2건 ISO에 제안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조선 산업 강점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해 차세대 조선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관 및 기계류(ISO/TC 8/SC 3) 회의에서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기의 시험 절차 등 국제표준 2건을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미국, 노르웨이 등 주요 조선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친환경 연료 선박용 기자재의 표준화 방향을 논의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7월 제 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100% 감축을 결의한 이후, 글로벌 조선업계는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중에서도 암모니아(NH₃)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독성·부식성 등 안전 이슈로 인해 밸브, 배관, 열교환기 등 기자재의 성능 검증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국표원은 이러한 시장 공백을 기회로 삼아 암모니아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번에 제안하는 2건의 표준은 각각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 시험절차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열교환기 시험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기후재난 대응훈련 실시

주민대피·응급복구 등 체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제방 붕괴 우려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이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풍수해 등에 대비해 현장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업을 점검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농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부를 운영하고, 공사는 현장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지난달 30일 전북 김제 청도저수지에서 실시된 훈련은 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폭우와 산사태가 동시에 발생해 저수지 방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저수지 월류와 ‘사면 슬라이딩’이 발생한 복합 상황이다. 사면 슬라이딩이란 저수지 주변의 흙이나 암반 경사면이 불안정해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가상상황 발생 직후 공사는 상황판단



전북 김제 청도저수지. /농어촌공사

회의를 열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주민 대피, 수위 조절, 응급 복구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수행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힌 구간은 굴삭기를 투입해 토사를 제거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훼손된 전신주를 복구하는 등 초동 조치를 병행했다.

또 드론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며 사면 배수를 통해 저수지 수위를 낮추고 제방 슬라이딩 지점에는 방수포와 매대를 설치하는 등 응급복구 활동을 전개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